마주협, '외국인 도움센터' 지정돼

종로경찰서와 협력체계 구축
이주민 피해사례 적극 전달
"인권보호 활동 활기 띨 것"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회장 지관스님·김포 용화사 주지)는 지난 20일 서울 전법회관 1층에서 '외국인 도움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서울 조계사 부주지 도문스님, 마주협 대표 지관스님을 비롯해 김양제 서울 종로경찰서장, 손안식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외국인 도움센터 지정을 축하했다. 현판식은 마주협이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외국인 도움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외국인 도움센터 지정으로 이주민들의 피해 사례나 민원 등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찰과의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마주협의 이주민 인권 보호활동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향후 마주협은 서울·경기 지역 회원단체와 이주민 공동체들과 협력해 도움센터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이주민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 마주협이 이주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주민들을 보듬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마주협 회장 지관스님도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종로경찰서와 교류, 인연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도움센터가 이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주협은 현판식에 이어 이주민 공동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이주민 공동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20일 서울 전법회관 1층에서 열린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외국인 도움센터' 현판식. 김형주 기자

우리민족서로돕기, 北에 방역 지원

말라리아 진단 키트 등 4억원 상당 약품 전달

천안함 사태 후 첫 민간 방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민간인 방북을 전면 금지한 이후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공동대표 영담스님)은 지난 17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을 위해 육로를 통해 개성을 방문했다. 이날 방북에는 박재원 가천의대 교수, 우리민족서로돕기 홍상영 국장과 황재성 부장 등이 참여했으며, 방북단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 12만개와 유충살충제 1톤, 모기향 60만개 등 총 4억원 상당의 방역물자를 북측에 지원했다. 향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말라리아 2차 방역물자 지원을 비롯해 대북 인도적 사업 재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이번 방북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08년부터 경기도와 남북공동방제사업을 벌이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14일 열린 고운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주지에 재선출된 호성스님(오른쪽)은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호성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를 위해 본·말사 대중들이 모은 성금 15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화엄사상 지역사회에 구현할 것"

호성스님,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임명

안동 청소년아카데미, 최치원 문학관 원만 회향
"전통강원 복원…청정수행도량 명맥 이을 것"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 후원금 기탁도

"재차 본사주지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어른 스님들을 비롯해 모든 제16교구 본·말사 대중들의 뜻을 잘 받들어 천년고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임명장을 받은 호성스님. 14일 열린 고운사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주지에 재선출된 호성스님은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노현스님, 양양 낙산사 법주 정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지난 4년간 본사 주지를 맡아 많은 불사를 진행하며 본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다른 본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성스님도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 어깨도 무겁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본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불사를 위해 본·말사 대중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15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지정기탁했다.

앞으로 4년간 고운사를 이끌어갈 호성스님은 먼저 청정수행도량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강원 복원불사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님은 "전통강원을 복원해 학인 스님들이 현대적 시설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율원과 염불원 등도 설립해 도제양성의 면모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운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와 무소유를 몸소 실천한 수월스님 등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 화엄사상을 보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스님은 "화엄사상은 현대사회에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정신이념이 될 수 있다"면서 "고운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화엄사상을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운사 고운청소년재단이 안동에 건립중인 '안동 청소년 아카데미'와 '최치원 문학관' 등도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스님은 "경북지역은 물론 전국단위 명소로 각광을 받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구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1년 고운사에서 근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호성스님은 1982년,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고운사 총무국장과 고금당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9월 고운사 주지에 취임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전국비구니회, 장학금 전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스님)는 지난 19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비구니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비구니회장 명성스님은 범준스님(고려대 박사과정), 현서스님(동국대 박사과정), 이화 씨(미국 콜럼버스 주립 커뮤니티대학 재학 중)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불교인재 육성을 위해 비구니장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첫 지급대상자 3명에게 학비를 지원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참여불교, 시민종교의 참 모습"

박희택 원장, 3대 종교주최 심포지엄서 주장

불교, 가톨릭,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은 지난 17일 서울 우리함께빌딩 6층에서 '한국사회에서 시민종교의 현상탐구-종교와 시민사회의 소통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0 만해축전 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희택 불교아카데미 원장은 '불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그 방법론'에 대한 발표에서 불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의 근거로 "불교가 가진 자기깨침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박희택 원장은 "시민종교로서 불교가 지향하는 바는 시대적 질곡을 건너는 혁신을 성취하는 것이고 방법론적으로는 공화적 이상을 견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참여불교적 접근은 불교의 본질에 부합하는 시민종교로서의 불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희택 원장은 "잘못된 신앙과 자아로부터 벗어나 열림의 자세로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시민사회 제1의 도덕률"이라며 "불교가 가진 자기 깨침은 자기반성과 자기비판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은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방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원 부원장과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이 각각 가톨릭 및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1부 주제 발표에 이어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이 '종교와 시민사회, 그 관계의 진화'에 대해 발제했다.

엄태규 기자

순천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존' 개최

사단법인 순천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김재기)는 지난 14일 순천호수공원에서 2010년 순천시 문화존 '문화야 문화야 놀자'〈사진〉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불교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순천 동산여중 댄스동아리팀과 치어리더팀의 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 또 행사장에는 화엄석경 탁본 체험을 비롯해 한지공예, 탈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재기 회장은 "청소년 문화존은 보고 느끼고 배우는 청소년 문화 네트워크"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전통 불교문화를 바로 아는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사=진재훈 기자